

불교로 통일을...

조계종 통일정책연구위, 장·단기 '통일 로드맵' 내놔

북핵경화(北核硬化)로 마비상태인 남북통일에 '불교'라는 만병통치약이 처방될 것인가. 남북관계가 전면대결태세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가운데, 남북교류 개선·발전에 대한 불교계 최초의 통일 로드맵이 나와 눈길을 끈다.

조계종 통일정책연구위(위원장 세영)는 2월 2일 정책보고서 <민족통일과 불교통합: 남북불교의 교류와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조항폐기 선언과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등 강경입장의 근본요인이 미국, 남한 정권교체에 따른 '핑퐁식 교류'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불교교류로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교계 내부적으로도, 교류사업과 각 사찰의 통일법회 등 협력사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한 성과가 있다.

세영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발간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통일정도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불교교류가 시작된 지 10여 년의 세월

이 흘렀다. 불교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남북불교교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현실에서 장·단기적 정책연구를 진행한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통일정책연구위가 발표한 이번 불교 통일 로드맵은 △남북불교 상호인정 및 교류협력 △불교도양래 및 남북불교종단협의회 등 조직구성 △통일종단·종법의 3단계로 이뤄져 있다. 현 정부의 통일 로드맵인 화해협력단계, 국가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에 불교의 통일관을 접목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위원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불교 통일 로드맵은 삼국통일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한 일심·화회·무애의 원효사상을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불교 통일 로드맵의 구체적 실천 방안은 △대북지원협력사업 △문화유산교류 △시민사회영역으로 세분화됐다. 대북지원협력사업에서는

불교계 대북 지원협력사업의 성과와 의미, 단계별 지원협력 사업의 전략과 과제, 지원협력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유산교류에 있어서는 북한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제도적 차원을 넘어서는 스승의 역할강화와 역할을 위한 대안도 모색했다. 교류사 정리를 통한 흐름 파악도 강조했다.

김용현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보고서에서 "로드맵 실현을 위해서는 범불교 차원의 조직체 마련이 요구되고, 불교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과 구체적 실천도 이뤄져야 한다"며 "불교계는 남북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보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북한지원을 둔 남남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로드맵에 따른 세부시책 마련으로 향후 남북불교교류가 탄력을 받아 경제성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보도자료집은 전국교구본사 및 통일부, 국회외교통위, 각 통일관련단체 및 불교대학을 비롯한 포교신도단체 등 총 213곳에 500부가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02)2011-1820-5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통일교문화의' 선임 고문에 위촉됐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news.com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부처님오신날 포어 확정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이하 봉축위)는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표어를 공모한 결과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을 선정했다고 2월 3일 발표했다.

봉축위는 "표어로 선정된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은 사회적 어려움을 자비 나눔 운동으로 극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봉축 제등행렬은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수경 스님 외)는 2월 5일 조계사에서 '용신참사 희생자를 위한 시국법회'를 봉행했다. 스님 50여 명을 비롯해 유가족 10여 명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수경 스님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시국법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계광장까지 행진했으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소연의식으로 회향했다.

봉암사, 국내 최대 규모 국제선센터 건립

2월 9일, 문경시와 MOU 체결

조계종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인근에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릴 국제선센터가 들어선다.

문경 봉암사주지 함현와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2월 9일 국제선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을 통해 봉암사

와 문경시는 한국불교의 특징을 전세계에 홍보할 국제선센터 설립과 관련해 예산과 행정지원 등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제선센터는 봉암사가 인근 석탄공사 소유 부지 34만평을 매입해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법구경

진실을 진실로 알면 지혜의 빛 속에서 진리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효로운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뒷문 02-730-6888 차영명)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허리·목·손목·발목·어깨·통풍·관절염·척추·신경통·골다공증·관절염·통풍·관절염·통풍·관절염

1)강영하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첫서니 맛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고생의 뽕잎차 이야기

다도·명상·고향음식·청어묵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9-100 (삼성동) 뽕잎차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순 향선초 판매 100%"

청디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명령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대구 정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중등 주문 받습니다(사말명 인쇄)

갈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중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